

가이드 수술 실패에 관한 소고

염 문 섭 / 서울탐치과

최근 치과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구강스캐너와 치과용 CT를 이용하여 수술 계획이 이루어지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Digital surgical guide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양상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 Center개념에서만 이루어지던 이러한 Digital surgical guide는 관련기기의 소형화와 가격효율성 그리고 운용의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기공소나 치과의원에서도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보급률도 증가 추세에 있다.

Digital surgical guide는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최소침습의 수술이다. 피판을 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봉합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장점은 환자나 술자에게 많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두 번째 장점은 정확한 각도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계획에 따른 정확한 식립은 보철을 용이하게 하고 항 후 보철물의 수명을 연장 시킨다.

그러나 서지컬 가이드로 수술한다고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를 간과할 경우 매우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가이드 수술 시 잘못된 KIT의 사용법에 의해서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드 디자이너에게만 모든 디자인을 일임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수술과 다소 거리가 있는 수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Bone heating 등 기본적인 숙지사항을 습득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동안 필자가 해왔던 실수 등을 정리하고 고찰해 보았다.

학력 및 경력

-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수료
- *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ICOI Korea) 회장
- * 대한심미치과학회 부회장
- * 현, 서울탐치과의원 원장